

'부·울·경' 처럼... 광주·전남 초광역권 묶어 핵심 의제 해결

민주당, '호남 소외론' 해소 위한 상생발전 특위 연내 구성
공항 이전·신산업 발전·에너지 고속도로 선도지역 구축 등
다양한 의제 논의... 팍 막힌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 붙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상생 발전 TF' 가동을 약속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전남·전라남도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차원의 민·군 공항 이전 등을 논의할 광주·전남 상생 발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집권 시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를 '지방 부활'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양부남 광주시장 위원장,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무총장 등과 TF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에게도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 TF의 구체적 일정 등은 오는 12월 중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부활을 위한 3대 사업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선도지역 구축 ▲광주·전남 통합 행정·신산업 발전 ▲민간·군 공항 이전 등을 광주·전남 TF의 핵심 의제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당 대표의 핵심공약이자 당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연구·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담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선도 지역으로 광주·전남을 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이 광주·전남을 하나의 초광역권 도시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광주·전남 민·군 공항 이전, AI(인공지능) 사업 등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또 광주·전남 상생 발전 TF가 꾸려지면, 사안·사업의 경중이나 우선 순위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 관련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을 방문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별다른 예고도 없이 광주·전남을 갑자기 찾아 TF 구성 등을 적극 밝히고 나선 것은 지역 내 '민주당의 호남 소외론' 확산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전남 대선 공약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상당수가 정부의 '호남 패싱' 기조와 민주당의 무관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군 공항 이전 사업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 속에 광주·전남 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의 골이 깊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민주당의 힘만으로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자칫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광주는 야당 도시로 낙인 찍힌 탓에 각종 정부 관련 사업 등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광주) 시민들 사이에선 믿었던 민주당마저도 낙후한 광주 발전에 별다른 관심이 없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재라도 민주당에서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니 실현 여부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 해결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가능할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재명 대표, 민생 행보 나서 중도확장 위한 '우클릭' 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쟁자배분 납품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총설의 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갑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시 공약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게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의 호소심과 다른 사건의 재판들이 남긴 했지만, 재

판에만 얽매기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털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민생 행보와 별개로 당은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검찰은 '몰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제표결 때 원내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몰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장외 집회에 동참하며 정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 여야, 내달 10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령이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엔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

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며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헌법 수호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2주 늦은 내달 10일로 미루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쿠광 풀필먼트서비스(유)」 (재택근무) 취업 연계 **훈련생 모집** (접수 ~24.12.01(일) 까지)

쿠광의 교육을 총괄하는 쿠광의 계열사입니다. Coupang Fulfillment Services(CFS)는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모집 개요**
 - 사업체 : 쿠광풀필먼트서비스(유)
 - 훈련 및 취업직무
- 지원 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등에 해당되는 자
 - 광주디지털훈련센터에 통학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
 - 맞춤훈련을 성실히 참여하고 근무할 자
 - 인터넷, 엑셀(기초)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집에서 재택근무 환경(컴퓨터 또는 노트북 설치, 인터넷 가능, 엑셀사용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자
 - 다음 (맞춤훈련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 접수 : 2024.11.06(수) ~ 2024.12.01(일) 20:00 (이메일 제출) • 방문접수는 2024.11.29(금)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2.02(월) 17:00 이후 개별발령(문자 또는 전화) 예정
 - 면접일차 및 장소 : 2024.12.04(수) 광주디지털훈련센터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관련 자세한 사항 개별발령 예정(면접시간 개별발령)
 - 맞춤훈련 합격자 발표 : 2024.12.05(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발령 예정 • 서류 검증 결과 탈락사유(허위 기재, 중방서류 미제출 등)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
 - 합격인원 미달 시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훈련기간 : 2024.12.09(월) ~ 2025.01.10(금), 5주 (2.5주간-광주디지털, 2.5주간-재택실습)
 - 훈련장소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및 재택
 - 채용예정일자 : 2025.01.13(일). ※ 합격자발표, 면접일, 훈련기간, 채용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발령
- 맞춤훈련 기간 중 훈련생 지원**
 -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 (훈련료, 교재 등)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최대 월 334,000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함
 - 식비(중식) 지원 • 훈련 중 상해보험 가입
 - 훈련시간 : 10:00~16:45 (2.5주 실무 통합훈련) / 13:15~17:00 (2.5주 재택실습, 웹캠 및 헤드셋 제공)
-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제출서류 : 맞춤형 지원서(소정양식),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사진촬영 후 메일첨부 가능)
 - 지원서류 다운로드 : www.kead.or.kr 또는 방문접수(광주디지털훈련센터) * 제출마감 : 방문접수 2024.11.29(금) 18:00, 이메일 제출 2024.12.01(일) 20:00까지
 - 방법1 : 전화(062-448-1188) 또는 메일(jkim77@kead.or.kr)로 연락 주시면 지원서 양식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방법2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내이비 블로그 (blog.naver.com/gwdigital) - 케티고리(훈련정보) 접속 후 다운로드
 - 방법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메인화면에서 맞춤형훈련생 모집 배너(이미지순차적으로 나타남) 클릭하여 다운로드 (또는 공단 홈페이지 - 직업능력개발 - 디지털훈련센터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 공지사항)
 - 방법4 : <https://www.worktogether.or.kr> - 교육정보 - 교육훈련정보 접속 후 다운로드
 - 방법5 : www.kead.or.kr 또는 방문접수(광주디지털훈련센터) * 제출마감 : 방문접수 2024.11.29(금) 18:00, 이메일 제출 2024.12.01(일) 20:00까지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 본문내용, 제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성명 표기
 - * 메일 제목 및 제출 파일명 예시) 쿠광풀필먼트서비스 인사지원서_홍길동 * 이메일 본문 내용이 없을 시 스펙처리 될 수 있음.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062-448-1188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68 KDB생명빌딩(당동) 19층(하하일 당동시장역 1번출구 400m)